

天地公事와 民主主義

楊 茂 木*

目 次

I. 연구의 시각	
II. 천지공사(天地公事)의 의의	3. 묻는 역사
1. 천지공사의 배경	IV. 민주주의와 천지공사
2. 천지공사의 의의	1. 민주주의의 의미
III. 천지공사의 역사(役事)	2. 민주주의와 천지공사
1. 뜯는 역사	가. 인간의 존엄성
2. 짓는 역사	나. 자 유
가. 해원사상	다. 평 등
나. 상생사상	라. 사회 정의
다. 보은사상	V. 결 어
라. 인존사상	

I. 연구의 시각

한국의 정치학 이론과 연구 방법 등은 한국의 고유한 것은 없고, 거의 대부분이 서구에서 발전된 방법과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해 왔다. 이는 한국이 정치학에 대한 연구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시킬 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며, 신학문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서구에서 공부한 학자

* 한국정치문화연구소 소장, 정치학박사

들에 의해 주도된 데 그 원인이 있다. 그리고 한국이 근대적인 민주 정치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서구에서 발달된 정치제도를 무비판적으로 도입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 따라서 한국을 대상으로 한 주체적인 고유한 정치학 연구 방법을 개발하고 전개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서구의 발전된 정치 제도와 이론들을 도입하여 적용해 왔지만, 한국에서 참다운 민주 정치는 실현되지 못하고 파행적인 정치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군부의 정치 참여와 물리력에 의한 정치권력의 출현으로, 한국의 정치 제도는 민주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실제의 정치 상태는 비민주적인 행태가 반복되어 왔다. 때로는 절대 왕권국가이던 조선시대의 정치만도 못한 비민주적인 정치가 주기적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기대 속에서 출범한 김영삼 정권 역시 문민정부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대의정치(代議政治)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여당 단독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를 시킨 것은, 아직도 한국의 정치가 전근대적인 비민주적 정치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의식과 정치 수준은 선진 민주국가 이상으로 높은 데 비해서 정치인들의 정치 의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치지 않고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은 노동계의 파업과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리하여 매우 어려운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엄청난 손실과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정치 권력은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이며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면 된다는 의식에서 날치기 통과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의회정치의 기초인 대화와 타협은 비능률적이고, 야당의 반대는 상습적이기 때문에 여당은 다수에 의한 일방적 의결을 자행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가 민주적이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서구의 정치사상을 신봉하고 한국의 전통적 사상을 경시한

데에도 주요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사상도 서구의 정치사상만이 최선인 것으로 인식하여, 한국의 고유사상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현실 정치에 적용하지 않은 것이, 한국의 정치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주요한 원인이라 생각한다.

한국 고유의 전통적 사상은 서구의 사상에 비하면 보다 인간주의적이고 자연법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합리적이며, 현실 정치에 적용되어야 할 가치와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대순 사상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한국 고유의 사상인 대순사상의 천지공사(天地公事)와 민주주의와의 관계를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천지공사의 의의와 주요 내용을 살펴 보고, 천지공사와 민주주의의 이념과의 관계 등을 논구해 보고자 한다.

II. 천지공사의 의의

1. 천지공사의 배경

천지공사는 증산께서 설파한 대순 사상의 한 부분이다. 대순 사상은 역사의 변화를 기초로 하여 정립되었다. 대순 사상에서는 역사를 천존시대(天尊時代) → 지존시대(地尊時代) → 인존시대(人尊時代)의 차례로 전개된다고 보고 있다. 우리가 역사를 원시시대 → 고대시대 → 중세시대 → 근대시대 → 현대시대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누는 것과 같다. 대순 사상에서는 천존시대와 지존시대는 선천(先天)시대라 하고 인존시대를 후천(後天)시대라 한다.

대순 사상에서 대순이란 영원과 순환을 의미한다. 영원하다는 것은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다는 것이며, 순환이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의미이다. 대순이란 우주의 원리는 도수(度數)이며, 도수는 삼계(三界)를 순환하는데, 신명(神明)과 인간도 우주의 도수에 따라 순환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순환의 원리가 대순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천지공사는 증산이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공사(公事)는 조선시대 관청에

서 관무(官務)를 처리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써, 오늘날 정부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공사의 사전적 의미는 공무(公務)와 같은 의미로, 여러 사람에 관한 일,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사무로 공공업무를 뜻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사는 공무의 의미를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사는 공공업무라는 의미보다는 인간 세계의 일 뿐만이 아니라, 우주에 관한 일도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공사의 의미는 우주와 인간 세계의 잘못된 것들을 시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는 절대자적인 일 처리를 뜻한다. 즉 공사는 우주의 질서를 바로 잡고,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종교적 행사로 정립하였다.

천지공사는 하늘과 땅과 인간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공사이다. 천지공사에 의해서 선천시대의 부정적 현상들을 완전히 해결하는 후천시대가 이루어지게 된다. 천지공사를 통해 후천시대를 건설하고자 하는 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천시대는 상극 원리에 의해 투쟁과 모순이 만연되어 있다.

증산은 “삼계가 개벽되지 아니함은 선천에서 상극(相兇)이 인간지사를 지배하였으므로 원한이 세상에 쌓이고, 따라서 천·지·인 삼계가 서로 통하지 못하여 이 세상에 참혹한 재화가 생겼나니라”¹⁾ 하였다. 인간 사회가 상극으로 경쟁과 분열하여 상호 존중과 공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인간 사회에 윤리와 도덕은 있지만 형식화되고,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과 약육강식의 투쟁이 존재하는 상극시대가 되고 있다. 인간 사회가 투쟁과 경쟁으로 척을 짓고 있으며 원한이 극도로 맺혀 있다. 결과적으로 인간 사회는 불신으로 상호간에 불안을 가중시켜 왔다. 이러한 무질서와 불행은 악순환되고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선천시대에는 인간 환경이 파괴되어 균형과 조화를 잃고 있어 인간과 동식물의 생존 환경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 인간 환경이란 인간을

1)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예시: 8”, 「전경」(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9) pp 312~313

주체로 하여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모든 것을 말한다. 광의로 볼 때 인간 환경은 자연을 통하여 진화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요소와 문화를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 낸 모든 요소들의 결합체라 할 수 있다. 협의로는 인간의 생존과 활동을 가능케 하는 물리적 상황만을 뜻한다.

인간 환경은 크게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물리적 환경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 만들어진 환경으로 자연적인 환경과 인공적 환경이 있다. 사회적 환경은 인간 사회의 질서와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간에 의해 형성된 인공환경이다.²⁾

이러한 인간 환경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비정상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 여러 가지의 환경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환경 문제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지진, 화산, 태풍, 해일, 홍수, 한발 등)도 있는데, 이러한 환경 문제는 인간의 능력으로 통제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속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환경 문제는 자연재해를 뜻하지 않고,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말한다.

인간의 자연 파손으로 야기되는 환경 문제는, ① 자연자원의 고갈, ② 자연환경의 오염, ③ 자연경관의 파괴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자원의 고갈은 경제 개발을 위해 무절제한 자원의 개발과 이용에서 발생하고, 자연환경의 오염은 산업생산과 인간의 일상 생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과 폐기물에 의해 발생하며, 자연경관의 파괴는 인간 위주의 건설과 무분별한 위락활동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환경 문제는 생태계의 균형과 질서를 파괴하여 인간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셋째, 현대 사회는 변화가 급속하고 새로운 질서와 원리가 필요한 시대이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사회는 없었다. 자연과는 달리 역사는 인간의 의지와 실천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위대한 역사는 위대한 사상과 신념에 의해 만들어지게 된다. 바람직한 사회는 인간의 위대한 사상과 창조적 의지를 실천할 때 실현되고 발전하게 된다. 역사를 인간이 창조해 나간다는 의식은 인간의 사상과 창조적 능력에 대한 믿음을 전제

2) 김안제, “인간과 환경”,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편, 「미래지향의 인간교육」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1986) p 160

로 하는 것이다. 즉 역사 창조는 인간이 자연과 사회에 대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새로운 발전의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하지만, 인간의 의도와 의지대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인간의 행동이 전혀 예상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인류의 문명이 고도로 발달해 왔지만, 인간 사회가 바람직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선천시대는 인간 사회가 많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증산은 천지공사를 통해 인간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는 지금은 우주의 대변국시대(大變局時代)라 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은 우주 공간에 가득차 있는 생명(氣) 자체가 분열운동을 종결짓고 통일운동(無極)으로 대전환하는 시대라 하였다. 우주에너지의 운동 기능이 근본적으로 뒤바뀌어 버리려는 천지 성공시대이며 천지 개혁시대라 하였다. 증산은 현대는 선천시대에서 후천시대로 이행하는 전환기로써 천지공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천지공사를 통해서 우주를 새로운 질서로 조화하고자 한 것이다. 하늘, 땅, 사람의 삼계에서 하늘과 땅의 운도수(運度數)에 부정과 불응이 생겨서 우주 안에 있는 신명의 세계와 사람들의 세계에 상극이 벌어져 진멸하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상극은 삼계가 원한을 갖고 있으며, 인간 사회도 안정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원한으로 약육강식이 벌어지고 있으며, 하늘세계는 천기(天氣)가 고르지 못하여 재해와 재앙이 발생하고, 질병이 생겨서 우주 만물이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삼계의 진멸 위기를 극복하여 새로운 선경의 이상사회를 건설하려는 것이 천지공사이다. 멸망해 가는 세계를 구하고, 질병에 시달리는 인간들을 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천지공사를 시행한 것이다.

2. 천지공사의 의의

천지공사는 이상적인 인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사상들이었다. 즉 후천시대를 건설하기 위한 천지공사가 대순 사상의 요체라 할 수 있다. 증산은 삼계(천상세계, 인간세계, 자연세계)의 생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천

지공사를 집행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우주관이라 할 수 있다.

천지공사의 우주관은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과학적 관념이 아니라, 공간과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한계 상황에서 존재의 근거는 무엇이며,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지침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주관은 신화나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우주론과는 다른 것이다. 증산이 제시한 우주관은 우주를 포괄함과 동시에 우주와 인간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종교적 사유이다. 즉 증산의 우주관은 우주보다도 인간을 중심으로 한 사유이고, 이상적 사회 건설(후천 선경)을 위한 관념적 틀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의 창조설, 또는 신화에서 나타나는 발생설 등과는 달리 우주를 기성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우주가 어떤 질서있는 법칙에 따라 성(成)하고 쇠(衰)하는가를 밝히는 자명설(自明說)이다.³⁾ 자명설은 우주에 대한 관찰과 경험을 통해 공리(公理)나 법칙을 발견하고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주관은 우주 만물이 무이위화(無而爲化)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즉 모든 만물이 법칙에 따라 조화를 이루며, 변화되어 성쇠(盛衰)하고 소장(消長)하는 것으로 본다.

우주의 법칙은 도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도수란 우주의 질서와 운동의 법칙이고, 우주의 질서를 천지도수라 한다. 천지공사에서 우주관은 우주의 모든 질서가 순환하는 것은 천지 도수(天地度數)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증산은 천지 도수는 인간 세계의 모든 인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증산은 “인사는 기회가 있으며 천시는 때가 있으니 그 기회와 때를 기다릴 것이니, 이제 기회와 천시를 억지로 쓰면 그것은 천하에 재화를 끼치게 될 뿐이며 억조의 생명을 억지로 앗아가는 일이 되리라”⁴⁾ 하였다. 즉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일을 성사시킬 수 없으며, 그리고 하늘과 땅의 뜻은 일정한 도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도수를 짜내는 것이 바로 천지공사를 시행하

3) 張秉吉, 대순종교사상(서울: 대순종교사상연구소, 1987) p 47

4)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앞의 책, “공사: 2-24”, p 124

는 일이다. 즉 우주가 운행하고 순환하는 것은 천지 도수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 도수를 짜내는 일이 천지공사인 것이다. 천리란 우주와 인간이 창조되고 변화하는 기본 원리라 할 수 있다. 우주와 자연에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은 자연과학에서 규명되고 있는데, 이러한 자연법칙은 천지 도수와 같은 의미가 있다.

따라서 자연법칙과 천지도수는 과학적으로 볼 때 유사하다. 다만 자연법칙은 자연계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천지 도수는 자연계는 물론 인간 사회에도 적용되고 있다. 천지 도수는 자연과 인간 모두에게 적용되며, 인간과 자연의 진화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다.⁵⁾ 즉 천리도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우주 만물의 질서는 천지 도수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천지 도수는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천지 도수가 어긋나게 되면 우주의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이변(異變)이 나타나게 된다. 선천시대에는 천지 도수가 파괴되어 혼란 상태에 있으며, 그리하여 상극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증산은 선천시대의 파괴된 천지 도수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천지공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천지공사란 천지 도수를 바로 잡는 것으로서, 천지간의 큰 일을 처리한다는 의미이다. 우주와 인간 사회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천지 도수가 바르게 정립되어야 하는데, 천지 도수를 바로 잡는 것이 천지공사라 하였다. 혼란된 천지 도수를 바르게 설정하는 것은 선천개벽공사(先天開闢公事)이고, 파괴된 천지 도수를 바로 잡는 것이 후천개벽공사(後天開闢公事)이다. 이러한 천지공사에 관한 증산의 주요 어록(語錄)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아무리 큰 일이라도 도수에 맞지 아니 하면, 허사가 될 것이요. 아무리 경미하게 보이는 일이라도 도수에 맞으면 마침내 크게 이루게 되느니라.

이 말은 도수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세상의 어떠한 일이라 하더라도 도수

5) 李恒寧, “대순사상에 관한 소고”, 대순종교문화연구소 편, 「대순사상의 현대적 이해」(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8) p 154

가 맞지 않으면 성취될 수 없으며, 비록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도수가 맞으면 커다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다. 천하의 모든 일은 도수를 바르게 세워야 하며, 도수를 획정하는 일이 성패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내가 삼계 대권을 주재(主宰)하여 선천의 모든 도수를 뜯어 고치고 후천의 새 운수를 열어 선경(仙境)을 만들이라.⁶⁾

증산은 삼계 대권(三界大權)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바로 잡고 후천의 선경(仙境)을 열겠다고 하였다. 천상세계, 인간세계, 자연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선천의 도수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와 함께, 이를 실현하여 선경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造化)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仙境)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⁷⁾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 쟁투하느니라. 이를 없애려면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선경이 세워지리라.⁸⁾

이 말은 선천시대를 진단하고 선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파한 것이다. 먼저 증산은 선천시대에는 원한이 너무나 커서 삼계에까지 넘치고 있기 때문에 참혹한 재앙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았다. 선천시대에는 천상세계, 인간세계, 자연세계 등 삼계가 원한으로 맺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간사회는 상극이 지배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원한으로 인한 참혹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천지 도수를 바로 잡고, 해원(解冤)을 통한 상생(相生)으로 선경을 만들 수 있는 조화정부(造化政府)를 세우겠다고 하였다. 천지 도수를

6)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앞의 책, “권지: 1-21”, p 271

7) 같은 책, “공사: 1-3”, p 98

8) 같은 책, “공사: 3-5”, pp 130~131

바로 세워서 삼극세계가 아닌 삼계가 상생할 수 있는 세계를 건설하겠다고 하였다.

이제 그 도수를 써서 물샐 틈없이 굳게 짜놓았으니 제 도수에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⁹⁾

이제 하늘도 뜯어 고치고 땅도 뜯어 고쳐, 물샐 틈없이 도수를 짜 놓았으니, 제 한도에 돌아 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¹⁰⁾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神道)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¹¹⁾

증산은 하늘과 땅을 뜯어 고칠 수 있는 천지 도수를 정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 하였다. 신도를 조화할 수 있는 천지 도수를 정하여 인간이 하는 일을 성공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곧 천지공사라 하였다.

천지공사는 천지를 관리하는 공사이다. 가정에는 가정공사가 있고, 사회에는 사회공사가 있으며, 국가에는 국가공사가 있는데 천지공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공사이다. 천지공사는 절대적인 능력을 통해 가능하다. 증산은 삼계 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지공사를 주재할 수 있는 것이다. 증산이 정한 천지 도수에 따라 우주는 새로운 질서에 의해 선경의 세계가 펼쳐질 수 있다고 한다.

천지공사는 선천시대를 후천시대로 건설해 나가는 공정을 말하는데, 선천시대와 후천시대를 비교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¹²⁾ 공간을 보면 선천시대에는 동서로 나뉘어지고, 후천시대에는 삼계(천계, 지계, 인계)로 분류한다. 종교는 선천시대에는 동(東)은 유도, 불도, 선도로 분립하고, 서(西)에서는 서도(기독교)를 기초로 몇 가지 종교가 대립한다. 종교의 기능을 보면 선교에서는 포태로 씨앗을 간직하는 기능을 하고, 불교는 양생으로 성장기능을 하

9) 같은 책, “공사: 3-37”, p 147

10) 같은 책, “교법: 3-4”, p 245

11) 같은 책, “공사: 1-3”, p 98

12) 張秉吉, 앞의 책, p 96

며, 유교에서는 욕대(浴帶)로 성숙기능을 한다. 서도는 기능상으로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선천시대에 공간적으로 갈라지고, 종교적으로 분립하는 것은 상극의 이치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나 상극의 원리는 우주 만물을 배종(胚種)하고 성장케 하며 열매를 맺도록 한다.

선천시대와 후천시대 비교

시간(宙)	공간(宇)	종 교	기 능	법 칙	시 공
선천(先天)	동(東) 서(西)	선 도 불 도 유 도 서 도	포태(胞胎) 양생(養生) 욕대(浴帶)	상 극	宇 宙
후천(後天)	삼계(三界)	진법(眞法)	관왕(冠王)	상 생	宙 宇

반면에 후천시대에서는 주(宙), 즉 시간이 중심이 되고, 공간상으로는 종적으로 하늘, 땅, 사람의 삼계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만물은 결실을 맺고 저장된다. 즉 천지공사가 이루어지는 후천시대에서는 선천시대와는 다른 원리에 의해 인간이 살아가는 시대이다. 선천시대에는 생성의 원리가 지배하였지만 후천시대에서는 생성의 원리는 파기되고, 그것을 새롭게 변형한 수장(收藏)의 원리가 지배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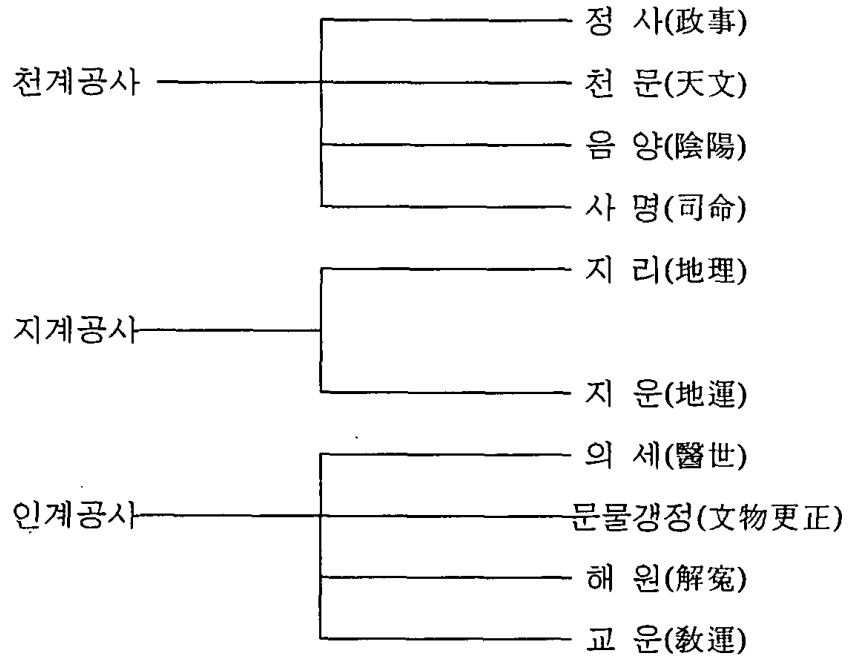
Ⅲ. 천지공사의 역사(役事)

선천시대에서 후천시대를 건설하는 천지공사는 천계공사(天界公事), 지계공사(地界公事), 인계공사(人界公事) 등이 있다.¹³⁾ 천지공사는 천지를 관리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인간 모두를 다루는 세 가지 공사를 하게 된다. 선천시대에는 하늘과 땅과 인간이 혼란된 상태에 있어, 이를 일정한 질서와 법칙에 의해 존재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후천시대를 여

13) 대순종교사상연구소 편, 천지공사론(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9) p 119

는 천지공사인 것이다. 천지공사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¹⁴⁾

천지공사의 주요 내용



하늘세계에는 천연(天然)이 있고, 땅세계에는 지연(地然)이 있으며, 인간에게는 인연(人然)이 있다. 이러한 각각의 연(然)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천지공사이다. 연이란 하늘과 땅과 인간에게 일어나는 변화, 운회(運回), 작용, 본질 등에 관한 이치이다. 이러한 연을 바르게 세우는 천지공사는 뜯고, 짓고, 여는 공정을 따라 이루어진다. 즉 천지공사는 뜯는 역사, 짓는 역사, 묻는 역사로 이루어진다.¹⁵⁾

1. 뜯는 역사

천지공사의 첫 번째 역사는 뜯는 역사인데 이를 소멸공사(消滅公事)라고도 한다. 선천시대에는 삼계(天界, 地界, 人界)가 조화되어 있으나, 삼계가

14) 천지공사의 분류와 처결은 張根煥, “천지공사의 형태적 분석”, 대순진리회 편, 「대순논집」(서울: 대순진리회, 1992) pp 48 ~ 58 참조

15) 대순종교사상연구소 편, 천지공사론, 앞의 책, pp 119 ~ 147

화합하지 못하며, 그리고 각각의 계(界) 내에서도 상극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천지공사는 삼계의 상극상태에서 나타나는 각종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뜯는 역사를 먼저 하게 된다.

선천시대의 상극은 정기(精氣)인 양기(陽氣)와 음기(陰氣)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양기와 음기는 성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며,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한다. 양기와 음기의 성쇠와 많고 적음은 공간과 시간에 따라, 그리고 우주만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정기의 변화 현상은 정기의 운회(運回)에서 나타난다. 운회는 정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기의 회로와 음기의 회로가 각각 따로 있다고 한다. 양기의 회로는 건도(乾道)라 하고 음기의 회로는 곤도(坤道)라 한다. 우주 만물은 건도와 곤도의 운회에 따라 존재하게 된다.

선천시대는 천하가 병에 걸려 있는데, 이 병을 고치는 것이 후천시대를 여는 것이다. 그리고 병을 고쳐 후천시대를 여는 천지공사는 바로 잘못된 정기의 운회를 뜯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뜯는 공사는 방위(方位)의 자리를 교체하는 일, 건도와 곤도의 회로, 시간의 회로를 새로 만드는 공정, 그리고 포일극(抱一極)이 있다. 포일극이란 하늘과 땅과 사람의 세 세계가 상통하게 하는 공정을 말한다.¹⁶⁾

2. 짓는 역사

짓는 역사는 인간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인간 사회의 문제 해결은 원한을 풀어 주는 것이다. 원한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생기게 된다.¹⁷⁾ 증산은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¹⁸⁾ 하였다. 사람은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데,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분통을 터트리니 마침내 병에 걸려 죽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욕구가 있으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을 한다.

16) 뜯는 역사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같은 책, pp 121 ~ 133 참조

17) 원한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楊茂木, “대순 사상과 한국 정치,” 「대순사상논총」, - 제1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출판부, 1996) pp 216 ~ 218 참조

18)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교법: 3-24.,” 「전경」(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9)

인간의 욕구는 기본적 욕구에서부터 고차적 욕구로 계층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인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 → 안전의 욕구 → 사회적 욕구 → 존경의 욕구 → 자아 실현의 욕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¹⁹⁾ 이러한 인간의 욕구는 단계적으로 생기는 것만이 아니라 두 개의 욕구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며,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도 각기 다를 수 있다.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욕구에서부터 점점 더 복잡하고 충족하기 어려운 상위의 욕구로 발달하게 된다고 한다. 인간은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면 다음의 새로운 욕구가 생기는데, 상위의 욕구로 갈수록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이다.

생리적 욕구는 식욕(食慾), 종족 보존 등 본능적 욕구 등을 말한다.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불안과 공포로부터 해방과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안전의 욕구가 나타나게 된다. 안전의 욕구는 사고, 전쟁, 질병, 경제적 불안, 무질서 등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사회적 욕구는 소속 또는 애정의 욕구라고도 하는데 여러 사회 집단에 소속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우의와 애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존경의 욕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고, 자신이 스스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자 하는 욕구로서 권력욕, 성취욕, 지위욕 등이 해당된다. 자아 실현의 욕구는 인간의 최고의 욕구로서 자신의 잠재적 인식세계를 뜻대로 실현하고 싶어하는 욕구이다. 자아 실현의 욕구는 자신이 의도한 인생을 살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인간의 욕구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충족될 수 없는 성향이 있다.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여 모두를 성취할 수 없으며, 일정한 상태에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욕구가 발생하게 된다. 자신의 능력과 노력의 정도에 적합한 욕구를 갖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그 이상의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욕구 충족은 항상 미흡하게 된다.

인간의 욕구는 다른 사람들의 욕구와 충돌하게 된다. 모든 인간들이 욕구를 갖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기 때문에 경쟁을 하게 된다. 이른

19) Abraham H. Maslow, "The Theory of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July, 1943) pp 370 ~ 396

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상태에 있기 때문에 욕구 충족은 더욱 더 어렵게 된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과 공존과 화합하기 어렵게 된다. 인간이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하였지만, 이로 인한 인간 사회의 불신과 불만 또한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증산은 “이제 먼저 난법(亂法)을 세우고 그 후에 진법(眞法)을 내리나니, 모든 일을 풀어 각자의 자유 의사에 맡기노니 범사에 마음을 바로 하라. 사곡한 것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 되니라. ... 마음을 바로 잡지 못하고 사곡을 행하는 자는 지기가 내릴 때에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통겨지리라”²⁰⁾ 하였다. 즉 난법을 통해 인간의 욕구가 충족되기 어렵고 원한이 응어리가 되어 맺히고 쌓이게 되지만, 마음을 바로 잡아 진실되게 살라고 하였다. 진실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 진법에 의해 후천시대가 되어도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 가르쳤다.

선천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후천시대를 열기 위한 천지공사는 해원사상, 상생사상, 보은사상, 인존사상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천지공사의 사상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가. 해원사상(解冤思想)

인간이 욕구 충족을 하지 못하면 원한이 생기는데, 이러한 원한이 쌓이면 개인 사이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서로 대립되고 갈등과 분쟁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천지 도수가 잘못되면 음양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상극투쟁을 한다. 인간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기보다는 경쟁과 투쟁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질적인 정치, 종교, 윤리와 도덕 등을 만들어 내고 약육강식의 생존 원리에 따라 대립과 분쟁과 화합을 되풀이하여 왔다.

원한은 보복과 사회에 대한 일탈된 행동을 하게 된다. 증산은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²¹⁾ 하였다.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첫째, 개인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척을 짓지 말고, 척을 지었다

20)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앞의 책, “교법: 3-24”, pp 254 ~ 255

21) 같은 책, “공사: 3-4”, p 130

면 먼저 척을 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둘째, 이유 없는 봉변을 당했거나 자연적 재난을 당했어도 자기 스스로 반성하고 원한을 갖지 말아야 하고, 셋째,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우와 예의를 지켜야 하며, 넷째,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잘 되도록 도와 주어야 하며, 사회에 대해 집단적 원한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인간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우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²²⁾

나. 상생사상(相生思想)

상생은 인간을 둘러싼 모든 환경과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상생이란 인간이 살아가는 데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물론, 우주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협력하며 질서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인간 생활과 우주는 본질적으로 상생적 질서로 구성되어 있으나, 인간 생활이 불안하고 불법적인 것은 상호간에 원한이 맺혀 있기 때문이다. 우주와 인간 생활이 평안하고 조화를 이루려면 원한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상생 질서로 바뀌어져야 한다.

상생을 위한 공사는 선천시대의 모든 원한을 완전히 푸는 데에서 시작된다. 우주와 인간 세계의 원한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원한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완전한 해원을 위해서 상생공사가 필요하다. 상생공사는 해원공사의 완성을 위한 공사라 할 수 있다. 증산은 선천시대의 상극지리를 상생지리로 개조하기 위해서 천지공사를 한 것이다.

증산은 “천지에 신명이 가득차 있으니, 비록 풀잎 하나라도 신(神)이 떠나면 마를 것이며, 흙 바른 벽이라도 신이 옮겨가면 무너지나니라”²³⁾ 하였다. 이는 우리의 전통적인 다신론(多神論)의 신관(神觀)으로서 인간과 신은 서로 상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천지를 개벽하고 무궁한 선경의 운수를 정하여 조화정부(造化政府)를 열어 재난에 빠진 신명과 민중을 건지려 하니라” 하였는데, 이는 상극지리를 상생지리로 바꾸는 것은 인간세계만으로는 되지 않고, 신명세계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22) 楊茂木, 앞의 논문, pp 218 ~ 219

23) 같은 책, “교법: 3-2”, p 245

“내가 상생의 도로써 창생(蒼生)을 교화하며 세상을 평안케 하려 하노니, 이 세상을 보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요, 마음을 고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제부터 마음을 잘 고치라, 대인을 공부하는 자는 항상 남을 살리기를 생각해야 하나니, 어찌 창생을 멸망케 하고 홀로 잘 되기를 도모함이 옳으리오”라 하여 남이 잘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마음을 갖고 실천하라 하였다.

상생은 우주의 질서가 바르게 잡히고 인간 세계가 모순과 갈등, 대립과 투쟁이 종식되고 화합을 이루게 되는 것을 말한다. 증산은 상생이 되면 적서(嫡庶)의 명분과 반상의 구별이 없어지고, 모든 신명을 해원시키고, 계급의 차별이 없어지고, 빈부의 차별이 철폐되고, 식록(食祿)이 고르게 되며, 벼슬아치는 분수에 넘치는 폐단이 없어지고, 백성은 고통과 원한과 분노 등 모든 번뇌가 사라지며, 각 민족들간에 분쟁이 없어지고, 미물과 곤충들도 잘 살게 되며, 천덕과 지덕을 똑 같이 누릴 수 있는 선경이 이루어질 것이라 하였다.

다. 보은사상(報恩思想)

보은이란 남으로부터 받은 혜택이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보답하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자연환경으로부터 받는 혜택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혜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보은은 자연환경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혜택에 대해 보답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연환경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간 생활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 인간이 호흡하고 식량을 생산하고,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원은 자연으로부터 얻어진다. 공기가 없고 물이 없다면 인간은 생존을 할 수 없으며, 자연 자원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물질적 안정을 누릴 수 없다.

그리고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무수한 관계를 맺고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존재하게 된다. 모든 인간은 부모에 의해 태어나고, 많은 사랑을 받으며 성장을 하고, 학교와 사회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살아간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연환경과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도움과 혜택에 대해 보답을 하지 않으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즉 은혜를 받기만 하고 보답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

자연환경으로부터 받는 혜택에 대해 고마워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용만 하게 되면 자연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 오늘날 자연을 개발만 하고 보존하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생겨진 극심한 환경 오염과 자원의 고갈은, 이제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예상하지 못한 기상 이변이 빈발하고 있으며, 지구의 온난화(溫暖化) 현상들이 지구의 종말을 예고한다고 환경학자들은 경고하고 있다.

자연환경에 대해 고마움을 갖지 않은 인간의 개발 활동은 자연으로부터 보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자연환경과 천연자원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후손들로부터 빌려 쓰고 있으므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환경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고 있는 은혜와 혜택에 대해 보답하는 「은혜의 수수법칙(授受法則)」에 따라 생활해 나가야 하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모르거나 보답하지 않는 생활은 결국 원한을 사게 되고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 받지 못하게 된다.

라. 인존사상(人尊思想)

천지공사가 이루어지는 후천시대는 인간을 존중하는 시대이다. 후천시대에서는 선천시대와는 다른 원리에 의해 인간이 살아가는 시대이다. 증산은 천존시대와 지존시대에서 인존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인존시대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이 역사를 주도하고 모든 인간이 존중받는 시대인 것이다. 선천시대에는 인간이 존중받지 못하고 각종 차별과 학대를 받았으나, 후천시대에는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존중받는 시대라 하였다. 그리하여 남녀의 차별, 적서와 반상의 구별, 계급과 빈부 차이 등이 없는 이상 사회의 건설이 후천시대라 할 수 있다.

인존은 글자 그대로 인간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는 어떠한 것도 가치가 있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세상의 모

든 일은 인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인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개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증산은 천지가 일월이 아니면 빈 껍데기요, 일월도 사람이 없으면 빈 그림자나라(天地無日月空殼, 日月無知人虛影) 하였다. 이 말은 인간이 우주의 주체로서 인간이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밝혀 주고 있다. 천지공사가 추구하는 기본은 곧 인간이 우주에서 절대적인 존재로 존중받게 하려는 데 있다. 즉 천지공사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의 재창조이며 번영을 이루는 데 있다. 인간이 하느님이나 신명세계에 절대 복종만 하고 죄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구원을 통해 인간이 무엇보다 존중받는 새로운 역사 창조가 천지공사의 이념이다.

3. 묻는 역사

묻는 역사는 인간 사회의 반목과 투쟁을 가라 앉게 하는 공사로 매화공사라고도 한다. 증산은 “지기(地氣)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 투쟁하느니라. 이를 없애려면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선경이 세워지리라”²⁴⁾ 하였다.

지구는 본래 하나이었는데 여러 나라로 나뉘어져 있고, 한 나라에서도 토지의 소유권이 나뉘어져 있다. 지구가 여러 나라로 분리되어 있고, 한 나라의 땅도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나아가서는 서로 전쟁까지 한다. 이러한 경쟁과 전쟁을 사라지게 하는 역사가 묻는 역사(매화공사)이다. 묻는 역사는 불(전쟁)을 끄거나 땅속에 묻는 일을 하는 것이다.

묻는 역사는 ① 신명의 조화, ② 천지 도수의 조정, ③ 천지 개벽과 선경 건설의 구조로 이루어진다.²⁵⁾

24)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앞의 책, “공사: 3-5”, p 130

25)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순종교문화연구소 편, 천지공사론, pp 142 ~ 147 참조

IV. 민주주의와 천지공사

1. 민주주의의 의미

민주주의는 다른 통치 형태들에 비해서 역사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민주주의는 어느 누구도 이익을 제기할 수 없는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정치형태로 보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주주의자라 하고 있으며, 세계의 모든 정권들도 민주체제라 주장하고 있다. 그리하여 민주주의는 인간 생활과 정치에 있어서 정당성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모든 법률과 규칙과 정책은 민주적일 때 정당화된다. 그러나 실제의 생활과 정치형태는 민주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창설하고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정부형태이다.²⁶⁾

민주주의(Democracy)는 고대 그리스에서 민중(Demos)과 지배 또는 권력(Kratos)이 결합되어 생겨진 말로써, 모든 민중이 자유롭고 평등한 입장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민중의 지배(통치)를 의미한다. 즉 국가 권력이 한 사람에게 속하는 군주정치,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귀족정치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민주정치는 민중이 권력을 가지는 동시에,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민주정치는 전체 국민이 주체적으로 정치에 참가하고, 자발적으로 질서를 형성하게 하는 정치형태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모두가 신봉하고 있지만, 이상적인 형태로 유지되고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완전한 상태의 민주주의는 실현된 바가 없으며, 보다 더 효과적인 민주주의, 보다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매우 다의적(多義的)이어서 정치적 논쟁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민주주의는 어떤 특정한 정치 원리 또는 정치 형태를 의미하기도 하고, 일상 생활에 필요한 원리나 인간 존중의 정신원리와 동의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26) David Held, "Democracy : From City-States to a Cosmopolitan Order?", Political Studies, vol. XL(1992) Special Issue, pp 10 ~ 39

한편 독재자들도 외형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앞세우고 있다. 그리하여 민주주의는 정치투쟁에 있어서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사용하기도 한다. 매우 비합리적인 것도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반대파는 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비판하면서 부정하고 있다.²⁷⁾

이른 바 민주주의의 회의론, 또는 민주주의 위기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미국에서 제기된 민주주의의 위기론은 정치 상황과 민주주의 이론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다. 1960년대 중반에는 민권운동, 신좌파운동, 반전운동 등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광범한 정치적 무관심이 확대되고, 한편에서는 소외된 시민들의 강렬한 정치참여 욕구가 표출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적극적이고 양식있는 시민이라는 민주주의 이상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²⁸⁾

1970년대 중반에는 운동의 정치가 퇴조하고 미국 정치가 평온을 되찾자 신보수주의자들은 상반된 시각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하였다. 1960년대에는 민주주의 위기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적 관심과 참여의 부재에서 전개하였는데, 1970년대에는 민주주의 과잉에서 민주주의 위기를 진단하였다. 1970년대에는 일반 시민들이 정부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어, 권력과 부의 근본적인 재배분이 없이는 충족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민주주의의 위기라 주장하였다.²⁹⁾ 그리하여 민주주의는 민주적 절차가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 한정되어 있으며, 민주주의의 효과적인 운영은 일반적으로 개인과 집단의 일정한 무관심과 참여의 조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론이 제기되었지만,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신념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민주 정치는 국민들의 자유롭게 표명된 다수의 의사에 의해 행해지는 정치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특정한 정치 형태와 함께, 인간의 국가 - 사회 생활의 실천원리로 이해해야만 한다.

민주주의는 이론적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 개념이며, 특수적 개념이 아니

27) 李克燦, 민주주의(서울: 종로서적, 1983) pp 6 ~ 7

28) Jack Walker, "A Critique of the Elitist Theory of Democr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0, (1966, June) pp 285 ~ 295

29) M. J. Crozier, Samuel P. Huntington and J. Watanuki, The Crisis of Democrac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75)

라 보편적 개념이다.³⁰⁾ 이러한 개념은 민주주의의 발생과 발달 과정을 보면 이해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역사적 개념이란 민주주의가 추상적으로 구성된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일상 생활의 실천 과정을 통해서 생겨진 개념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보편적 개념이란 어떤 특정한 시대와 장소에서의 개별적·특수적인 생활을 지배하는 원리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간 생활에 타당성을 지닌 원리라는 의미이다.

민주주의는 역사적이고 보편적 개념이라 하지만, 국가 - 사회에서 적용되고 실천되는 데 따라서 여러 가지 내용을 갖게 된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여 자유로이 정치 권력을 형성하고, 정치에 대한 주권을 갖는 정치 형태와 원리로 파악할 수 있다.

2. 민주주의와 천지공사

민주주의의 이념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그리고 평등과 사회 정의 등을 들고 있다. 민주주의는 어떠한 것도 절대적인 것으로 고정하지 않고, 상대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전개한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만은 민주주의의 절대적인 전제이며, 궁극적인 가치로 인정되어 왔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한 존재이므로,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이다.

그리고 자유, 평등도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기본 이념이다. 자유와 평등은 역사적으로 각기 다른 전통을 갖고 있다. 자유는 영미의 전통이고, 평등은 프랑스와 대륙에서 강조해 왔다.³¹⁾ 이 두 전통은 상이한 이념을 강조해 왔고, 때로는 상이한 목표를 추구하기도 하였다. 이 두 전통은 일반적으로는 차이점이 구별되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서로 경쟁적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첫째는 동일한 이념을 단지 서로 다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고, 둘째는 실제의 민주 정치는 두 전통과 상관없이 상황의 요구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되었던 것이다.

30)李克燦, 앞의 책, p 11

31) George Sabine, "The Two Democratic Traditions", *The Philosophical Review*, vol. LXI (October, 1952) pp 451 ~ 474

민주주의는 출발부터 자유와 평등을 이념으로 전개되었는데, 이 두 이념은 결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민주 정치에 있어서 자유가 많아질수록 평등은 적어지고, 평등이 많아질수록 자유는 적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자유가 한편으로 치우치면 폭정(暴政)이 되고, 그 반대쪽으로 치우치면 무질서(無秩序) 상태에 빠지고 만다. 이와 반대로 평등이 한편으로 치우치면 획일(劃一)이 되고 그 반대쪽으로 치우치면 특권층(特權層)이 생긴다. 따라서 자유가 많아지면 폭정과 무질서의 위험이 있고, 평등이 많아지면 특권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민주 정치는 그 실현이 어렵게 된다. 그러기에 보다 바람직한 민주 정치가 가능하려면 자유와 평등이 중용을 유지하며 공존이 될 때인 것이다.

여기서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천지공사의 사상과의 관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앞에서 선천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천지공사의 사상으로 해원사상, 상생사상, 보은사상, 인존사상 등에 관해 살펴 보았는데, 이러한 사상들과 민주주의가 실현하고자 하는 이념들과의 관계를 논구해 보고자 한다.

가.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 존엄한 존재로 인정되는 것은 독립된 개체로서 절대성을 갖고 있으며, 각기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³²⁾ 즉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실제적 표현인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제 각기 특수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도 존중되어야 한다. 인간 사회는 본래 개성적인 개인들이 모여서 형성된다. 개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은 모든 인간들이 획일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각기 갖고 있는 특수한 성질을 존중해야만 한다는 의미이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개성은 개인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의 실제적 표현인 개성 존중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독자성(獨自性)과,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어 놓 수 없는 특이성(特異性)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성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32) Gunzo Kojima(ed.),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for Democratizations for Democratic Education in Japan* (Tokyo: The Institute of Educational Research and Service 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1960) pp 48 ~ 78

우열을 정할 수 없는 것이다.

개성의 사회적 의미는 개인의 사회활동 속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재능, 자질, 성격 등의 특수한 표현이다. 사회는 개인의 독자적인 활동이 모여서 결합되어 형성되는 공동체인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특성을 최대한 발휘하면 할 수록 전체 사회의 활동 내용도 풍부하게 되고, 인간의 존엄성도 보장될 수 있다.

그리고 개성의 존중은 사회에서 제 각기 수행하는 독자적 역할을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다. 각기 고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개인이 공존하는 사회는 인간 상호간의 발전도 조장되고, 나아가 전체 사회의 조화있는 통일도 가능하게 된다. 개성은 고립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다른 개성과 관계를 가지게 될 때 확립될 수 있다. 즉 사회에서 자신의 개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개성을 존중해야만 한다. 자기와 다른 사람의 개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천지공사 사상과의 관계를 보면 첫째, 천지공사로 후천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증산은 인존을 강조하고 있다. 후천시대는 인존시대라 하였으며, 인존을 위해 천지공사를 한다고 하였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이니라” 하였다. 즉 하늘과 땅과 인간을 모두 존중하는데, 그 중에서도 인간 존중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증산은 “사람이 없으면(無人) 하늘과 땅도 존재의 의미가 없으며(無天地故), 하늘과 땅이 사람을 만들고(天地生人) 사람을 쓴다(用人)”고 하였다. 그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써 가장 존중 받아야 하며, 신과 같은 존재로 인정하고 있다.

둘째, 인간의 존엄성은 해원사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간을 존중하는 기본은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존중하는 것이다. 해원이란 인간 사회에서 서로 척을 짓지 않고, 맺힌 한을 풀어 준다는 의미이다. 인간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척을 짓지 않고 쌓인 한을 풀어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다.

셋째, 인간의 존엄성은 보은사상과 상생사상에 의해 실제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상생사상은 공존 공영을 의미한다. 상생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며 서로 협력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 주는 희생적 의미가 있다. 이러한 상생은 보은사상의 확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보은은 은혜나 혜택을 받은 데 대한 보상적 개념이라면, 상생은 은혜를 입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을 도와 준다는 적극적 의미를 갖고 있다.

나. 자유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떤 사물이나 다른 사람들로 부터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를 바란다. 정치생활에 있어서는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경제생활에 있어서는 경제적 안정을 갖고자 하는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를, 정신생활에 있어서는 정신적 안정을 갖고자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갈망한다.

이러한 자유에는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이 있다. 소극적 자유(freedom from)는 단순히 외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고 구속에서 해방된 상태를 의미하며, 적극적 자유(freedom to)는 소유, 완전한 기회, 행동의 권리 등에 대한 태도를 말한다. 밀(J. S. Mill)은 개성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소극적 측면을 강조하였고, 토마스 그린(Thomas H. Green)은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권위를 조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또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의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는 욕구를 갖고 있다. 인간의 자유에 대한 욕구는 완전한 참된 자신이 되고 싶다는 소망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 의지대로만 살 수는 없다. 한 사람이나 소수의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구속해서는 아니된다. 즉 각자의 자유가 평등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아니 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이 필요하다. 따라서 민주주의 이념으로서 자유의 문제는 사회에서의 자유의 문제로 파악해야 한다. 자유와 대립되는 것은 구속과 강제인데, 이러한 자유의 규제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생활하는 데 제한을 가하는 것이 된다.

더욱이 정신적 자유나 정치적 자유는 자유경쟁원리와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지만 경제적 추구에 있어서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자

유로운 욕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 때문에 개인주의적 가치에서 확립된 자유는 이제 '사회적으로 유익한 목적을 위해 행동하는 기회' 라는 사회적 관계에서 논의하게 되었으며, '자유'의 사회성이 이 강조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회에서 자유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자유를 실현한다는 것은 각 개인에게 부여된 사명으로서 개인의 자발성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유를 실현하려면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에서 실현할 수 있다. 즉 진정한 자유의 실현은 내면적 자유와 사회를 통해서 개인이 존중받는 자유이어야 하는 것이다.

개인은 자기의 내면적 자유가 사회에서 존중받으려면, 스스로 규제하는 자발적 구속이 필요한 것이다.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자기 인식이 확립되어야만이 올바른 자유를 사회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 자유와 더불어 평등의 이념이 제기되는 것이다. 인간이 평등하게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은, 참된 자기 자신이 되고 싶다는 소망이 평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자유는 개인이 자기 자신을 기본으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행동이다. 인간은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행동이 정당화 되기를 원한다.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자유가 도덕적·내면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 사회에서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자발적으로 제한하여,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양립시켜 나가야 한다.

현실적으로 참된 자유는 사회와 역사 속에서 서로 협력하여 주어진 현실을 개혁해 나감으로써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때 실현될 수 있다. 개인의 각기 다른 자유의 욕구와 주장은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과 자각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자유와 천지공사와의 관계를 보면, 첫째, 자유는 해원이 될 때 실현될 수 있다. 자유는 일차적으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 신체적으로는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는 완전한 자유를 느낄 수 없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척을 짓거나 원한을 갖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된다. 척을 지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에게 원한을 갖고 보복을 해 올지 모른다고 불안해 한다. 그리고 서

로 원한관계에 있는 사람끼리는 더욱 큰 불안감을 갖게 된다. 따라서 자유는 해원이 되어 마음의 평화와 평안한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자유는 상생적 관계에 있다. 모든 인간이 사물이나 다른 사람들로 부터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자기만이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상대적인 것과 같이 자유도 상대적이어야만 한다. 자유는 개인의 자발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의 자유도 동시에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런 자유는 상생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자유는 보은이 이루어질 때 의의가 있다. 인간은 은혜의 수수법칙에 의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무수한 관계를 맺고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은혜를 입고 갚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되며, 때로는 죄의식을 갖기도 한다. 참다운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경우 은혜를 갚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반대급부적 보상을 받으려 하지 않을 때 향유할 수 있다.

넷째, 자유는 인존사상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다. 자유는 인간이 존엄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데에서 성립하는 권리라 할 수 있다. 천지공사의 인존사상은 모든 인간을 존중해야 한다는 평등적 개념이다.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주 만물의 존재 의의가 없다고 한다. 인간을 존중한다는 것은 곧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라는 의미이다.

다. 평 등

일반적으로 평등이라 함은 신분이나 재산, 종족이나 성별 및 노유(老幼) 등에 관계없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격적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가 산술적(算術的) 평등과 비례적(比例的) 평등간의 갈등 관계를 설명한 이래 지금까지 평등사상은 많은 문제를 제기시키고 있다.

근대적 평등사상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보면, 첫째 정치적 평등이며, 둘째

법 앞에서의 평등이며, 셋째 신분상의 평등이며, 넷째 교육과 직업의 기회 균등과 경제적 평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조지 오웰(George Orwell)이 그의 '동물농장(Animals Farm)' 에서 표현하듯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남들에 비해 더 평등하다” 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자유와 더불어 평등은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는 전제하에 성립된 민주주의 이념이다. 민주주의는 인간 상호간의 관계가 대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이러한 평등은 인간의 개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개성을 존중하는 데 있다. 인간은 현실적으로 개별적 능력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인간은 지력, 체력, 경제적 능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차이가 있다고 해서 차별적 대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인간 사회에서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 데, 그것에 적합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담당하는 것은 정당하다.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의 차이로부터 나타나는 차이는 특정한 한정된 부분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평등의 구체적 실천은 기회 균등을 실현하는 데 있다. 민주주의에서 평등은 법적으로나, 정치적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 동등한 자격과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모든 인간들을 평등하게 인정하고 대우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자유와 관련하여 보더라도 개인은 각기 그 개성을 자유롭게, 그리고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갖지 않으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오늘날은 법적, 정치적 평등은 물론 사회적 평등과 경제적 평등까지도 지향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사회적 평등과 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는 데, 이는 기회의 균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민주주의의 평등 이념은 모든 인간들이 개성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평등의 실현은 모든 사람을 평균적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현대 사회는 인간의 평등과 불평등이 공존한다. 인간의 존엄성, 기본적

인권, 시민권 등에 있어서는 평등하지만, 사회의 조직에서는 위계적이다. 산업사회는 부와 권력의 불가피한 불평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조직되는 반면, 평등주의에 대한 일반적 신념을 갖고 있다. 사회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계층들, 차별적인 권력을 가진 개인과 집단들은 평등주의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할 때 집단 갈등이 발생한다.

평등 이념과 천지공사의 관계는 첫째, 평등은 해원이 되어야 실천될 수 있다. 인간 사회의 원한은 인간 관계가 불평등한 데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한은 개인적 관계에서도 나타나지만 집단적 성격도 있다. 예를 들면 빈부의 격차, 영향력의 차이, 지역개발의 편차 등에 의한 소외감과 불만은 집단적 원한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이질적 집단이 공존하는 사회에서의 집단적인 원한은 사회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평등의 실현은 개인적인 원한의 해소와 함께, 정치 사회적인 집단적 원한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둘째, 평등 이념은 상생사상이다. 상생 사상은 해원의 완성을 뜻한다. 해원만으로는 이상적인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 해원은 원한이 없던 사람과의 관계로 환원되는 소극적 상태라면, 상생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협력하고 잘 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이상적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평등 이념의 완전한 실현은 상생적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하겠다. 특히 집단적 원한은 상생적 사고와 행동에 의해서만이 해소될 수 있다.

셋째, 평등은 보은사상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은혜의 수수법칙은 인간관계가 평등하다는 전제하에서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불평등한 인간관계에서는 은혜의 수수법칙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 왜냐하면 사회구조가 불평등한 상태에서는 은혜에 대한 인식과 고마움을 갖기 보다는 본질적으로 불만과 원한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주요한 문제의 하나인 노사문제도 보은 사상이 부족한 데에서 커지고 있다. 노사가 평등하다는 인식이 없고, 서로 상대방에 대해 고마움을 갖기 보다는 원한관계에 있기 때문에 노사분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노사분규가 일어났을 경우에도 평등하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극한적인 대립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넷째, 평등 이념은 인존사상과 같은 의미이다. 인간이 존귀하다는 의식은 평등 이념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이 동등하게 기본권을 갖고 있으며, 존중되어야 한다고 인식할 때에 평등 이념은 성립하고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존중할 때 평등 이념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증산은 인간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천지공사를 하였다. 선천시대에는 인간이 존중받지 못하고 각종 차별과 확대를 받았으나, 후천시대에는 모든 인간이 빈부 귀천, 지위 고하, 피부색의 차이성과 연령 문명 정도의 차이 등을 막론하고 동등하게 대우받고 존중받는 시대라 하였다.

라. 사회 정의

자유와 평등의 이념에 생명을 불어넣고, 일상 생활 속에서 그 이념을 실현시키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회 정의이다. 아무리 자유가 인정되고 평등이 사회 각 곳에 충만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간 공동체인 사회가 정의로서 인간 관계를 이룩하고 규율하지 않는다면 완전한 민주 사회를 이룩했다고 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에 대한 존경심이라는 것도 인간 상호간의 정의의 감정으로 뒷받침되게 될 때 비로소 친숙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정의(正義)가 무엇인가. 정의의 개념은 고대로 학자에 따라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 매우 다의적이고 논쟁적이다. 동양의 경우, 공자(孔子)는 그의 제자 자공과 계강자로부터 정치의 요체에 관한 질문을 받고,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신(民信)」,³³⁾ 또는 「정(正)」,³⁴⁾이라고 하였으며, 맹자는 양(梁)의 혜왕(惠王)을 만나서 「인의(仁義)」³⁵⁾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서양의 경우,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정의의 본질에 관한 대화를 통하여 정의는 “최고선(最高善)” (goodness)이며, 이것은 도시적 사회를 결합하

33) 「論語」 顏淵(七) 편, “子貢問政 子曰足食足兵民信之矣 子貢曰必, 不得已而去 於斯三者何先 曰去兵 子貢曰必不得已而去 於斯而者何先 曰去食 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

34) 「論語」 顏淵(十七) 편, “季康子問政於孔子 孔子對曰 政者正也 子帥以正 孰敢不正”

35) 「孟子」 梁惠王章句上, “孟子對曰王何必, 曰利 亦有仁義而已矣”

는 유대로서 지혜·용기·절제가 상호 조화된 공적 덕(德)인 동시에 사적 덕이라고 하였으며,³⁶⁾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도시국가의 생활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덕(Virtue)이라고 주장하였다.³⁷⁾ 이러한 정의의 개념들은 더 나아가 스토아 학파(Stoics)에 의하여 로마적 자연법 정의론으로 이해되고, 그 후 홉스(T. Hobbes)의 실증법적 정의론, 록크(J. Locke)의 자연권적 정의론, 흄(D. Hume)과 밀(J. S. Mill)의 공리주의적 정의론, 독일 관념철학의 정의론 및 마르크스(K. Marx)에 있어서 정의의 실종(失蹤)에 이르기까지 그 개념은 다의적이고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에 대한 개념 정의를 종합 분석해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정의의 개념이 개별적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서로 상관성(相關性)을 갖고 있으며, 인간의 사회적 관계에 적용되는 대타적(對他的) 가치라는 점이다. 또다른 공통점으로는 정의가 특정한 정치 및 사회 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고, 자유와 평등과 밀접히 관련되고 있으며, 나아가 현대의 모든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 개념의 등장과 함께 정의의 문제가 심각하게 여러 시각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에 와서는 롤즈(J. Rawls)의 말과 같이 “진리가 사상체계에 있어서 제1의 덕목(德目)인 것과 마찬가지로 정의는 사회제도의 제1의 덕목”³⁸⁾ 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정의의 정신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다는 이상에 그 기원을 두며 사회를 올바르게 의롭게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 생활 전체를 통하여 이를 정의화(正義化), 도의화(道義化)하려는 데 그 의미가 있으며, 이같은 뜻에 따르기 위한 민주주의 운동은 하나의 정의, 도의의 사회 건설을 위한 혁명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람이 삶에 대해 갖는 궁극적 목적은 사람을 수단화하려는 비인

36) Francis MacDonald Cornford(trans.), *The Republic of Plato*(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참조.

37)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일반적 정의인 절대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인 분배적 정의와 시정적(是正的·corrective justice) 정의로 분류하였다. Ernest Barker(ed. and trans.), *The Politics of Aristotle*(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46) 부록 2편 참조.

38)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간적인 사회를 개혁하여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것이다.

사회 정의와 천지공사의 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사회 정의는 해원이 되어야 실천될 수 있다. 인간은 개인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고 있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성장하며 사회 속에서 자신의 삶을 실현하려고 노력한다. 인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개성과 인격과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나, 개인은 사회의 존재로서 사회의 보편적 규범을 실천해야 한다. 사회는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체 이상의 것이며, 그 자체의 독자적인 논리에 따라 움직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개인의 행위와 선택을 좌우할 수도 있다. 사회는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삶의 지혜의 축적인 질서와 전통을 내면화하고 이를 계승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사회 관계 속에서의 개인은 누구나 인종과 신앙에 관계없이 또한 자기 부모의 지위와도 관계없이 자기의 능력에 상응하는 사회적 지위를 얻게 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만일 정치 사회적인 실체가 무능 내지 차별을 강요한다면 사회 정의는 공허하고 그 사회는 대립과 갈등으로 서로의 중요심만 부추기게 되며, 자유와 평등의 조화가 무너지게 된다.

증산은 “내 경위만 옳고 남의 주장은 무시하는 데서 반발을 일으켜 미워하다가 마침내 원한을 품어 척을 맺는 법이다”³⁹⁾ 라고 하였다. 결국 자기의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무지와 무식에서도 출된 편협한 아집에서 척을 만들게 되어 원한을 사게 되며, 이로 인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온 세상을 참혹하게 만드는 것이다.

둘째, 사회 정의는 상생사상이다. 인간 실존의 기본적인 사실은 인간이 인간과 함께 있으며,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의식의 본질적인 부분에는 이미 사회라는 것이 내면화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사회의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는 관련 영역으로서 그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내가 우리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나의 필연적인 구성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와 개인의 이러한 불가분의 그리고 본질적인 연관 관계가 바로 인간의 존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39)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대순지침」(서울 : 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p 27

철학적 정치적 자유주의의 시조인 벤담(J. Bentham)은 “모든 객체는 효용을 가지고 있으며, 객체로서의 효용은 주관적이며, 인간 생활의 목적은 쾌락을 얻고 고통을 피하는 데 있다” 40)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 생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간이 자기 곁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또한 지각되지 않을 때도 역시 같이 있음이 존재적으로는 현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한편 도움도 받는 상생적 인간 관계가 형성될 때 가능한 것이다.

증산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피로 피를 씻는 것과 같으니라.” 41) “불의로써 남의 자제를 유인하지 말며, 남과 다투지 말며, 천한 사람이라 천대하지 말며, 남의 보화를 탐내지 말라. 보화라는 글자 속에 낭패라는 패자가 들어 있느니라.” 42) “신명은 탐내어 부당한 자리에 앉거나 일들을 편벽하게 처사하는 자들의 덜미를 쳐서 물리치나니라. 자리를 탐내지 말며, 편벽한 처사를 삼가하고, 덕을 닦기를 힘쓰고,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라. 신명들이 자리를 정하여 서로 받들어 앉히리라.” 43) “사람마다 그 닦은 바와 기국에 따라 그 사람의 임무를 감당할 신명의 호위를 받느니라. 남의 자격과 공부만 추앙하고 부러워하고 자기 일에 해태한 마음을 품으면 나의 신명이 그에게 옮겨 가느니라” 44) 고 하였다.

이처럼 상생은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며, 인간이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가야 하며, 인간과 신과도 공존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45)

셋째, 사회 정의는 보은사상이다. 인간은 사회의 일원으로서만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이라고 해서 사회를 초월하는 것은 아니다. 건전한 개인은 늘 건전한 사회를 토대로 해서만 자라난다. 고립된 개인이라는 것은 다만 관념적 추상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의 삶도, 행복도, 자유도 따지고 보

40) Roy C. Macridis, Contemporary Political Ideologies: Movements and Regimes(Glenview, Illinois Boston London: Scott, Foresman and Company, 1989)

41)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앞의 책, “교법 : 1-34”, p 227

42) 같은 책, “교법 : 1-38”, p 227

43) 같은 책, “교법 : 1-29”, p 226

44) 같은 책, “교법 : 2-17”, p 237

45) 楊茂木, 대순사상논총 : 제1집, 앞의 논문, pp 219 ~ 223

면 국가 사회에 의존한다. 대중적이고 조직적인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정치가 경제, 문화와 일체가 되어서 사회 구조를 거의 전체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의·식·주와 교통·통신 등 모두가 다 여러 사람들의 분업적인 공동작업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 서로 도움을 받고 서로 이용한다. 이 사람은 이 수요를 위해서 이용하고, 저 사람은 저 수요를 위해서 이용한다. 그래서 인간의 수요의 다양성은 많은 상호 협조자들을 함께 모아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며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증산은 “너리의 싸움은 천상에서 선령신들 사이의 싸움을 일으키나니 천상 희들은 항상 평화를 주장하라. 너희들끼리 서로 싸움이 일어나면 밖에서는 난리가 일어나리라.” “사람들 끼싸움이 끝난 뒤에 인간 싸움이 결정되나니라.” “트집을 잡고 싸우려는 사람에게 마음을 누그리고 지는 사람이 상등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니라. 분에 이기지 못하여 어울려 싸우는 자는 하등 사람이니 신명의 도움을 받지 못하리라. 어찌 잘 되기를 바라리오.”

“원수의 원을 풀고 그를 은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도 덕이 되어서 복을 이루게 되나니라” 46) 라고 하였다.

무릇 세상의 모든 물질과 권력과 기술은 모두 다 인간의 마음에 따라 그것이 인간에게 은혜가 되기도 하고 해독이 되기도 한다. 잘 쓰면 고마운 불이 되고 잘못 쓰면 무서운 불이 되기도 한다. 조심하면 고마운 길이 되기도 하고 방심하면 위험한 길이 되기도 한다. 결국 단순한 불이나 길이라도 사용하는 사람의 정의로운 마음에 따라 고마운 불이 되기도 하고 고마운 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증산의 “우리의 일은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이니라. 남이 잘 되고 남은 것만 차지하여도 되나니 ...” 47)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 말라. 아직도 남아 있는 복이 많으니 남은 복을 구하는 데에 힘쓸지어다. 호한 신천 유불사(呼寒信天猶不死)이니라” 48) 라고 한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에게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생각을 깊이 하게 되면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나

46) 같은 책, “교법: 1-53 54 55 56”, p 231

47) 같은 책, “교법: 1-2”, p 221

48) 같은 책, “교법: 3-9”, p 247

며, 정의로운 마음으로 매사에 심기를 바르게 가지면 반드시 하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다.

넷째, 사회 정의는 인존사상을 전제로 이룩될 수 있다. 인간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으며, 더 나은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으며, 생명의 유한성에도 불구하고 무한히 창조할 수 있는 욕구를 갖고 있다. 이러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로 한 인존 사상의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증산은 “천존(天尊)과 지존(地尊)보다 인존(人尊)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하고, “선천에는 모사(謀事)가 재인(在人)하고 성사(成事)는 재천(在天)이라 하였으되 이제는 모사는 재천하고 성사는 재인이니라”⁴⁹⁾ 하였다. 위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생존권, 행복 추구권 및 자유권 등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또 증산은 “원수의 원을 풀고 그를 은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도 덕이 되어서 복을 이루게 되나니라” 하면서 “돈이란 것은 순환지리로 생겨 쓰는 물건이니라. 억지로 구하여 쓸 것은 못되나니 백년 탐물(百年食物)이 일조진(一朝塵)이라”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금력이나 권력, 그리고 권위 따위는 인간의 존엄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인간의 존엄성은 오히려 지위도 힘도 외로운 사람이 자기의 신념이 가리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욱 존엄하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인간은 빈부나 지위와는 관계 없이 누구나 한결같이 존엄성을 갖고 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할 때 어떤 유혹과 권력 앞에서도 정의에 어긋남이 없이 인간답게 처신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게 될 때 인간의 행동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의 존재의 가치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존재에도 똑같은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는 것이다. 결국 천지공사의 정신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생활을 그 대로 반영하고 있다 하겠다.

49) 같은 책, “교법: 3-35”, p 257

V. 결 어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정치제도로서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통치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 민주주의는 인간 생활과 정치 생활에 있어서 정당성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과 국가들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의 생활과 정치에서는 민주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창설하고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정부 형태이다.

한국도 해방 이후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이론들을 적용해 왔지만, 참다운 민주 정치는 실현되지 못하고 파행적인 정치 행태가 계속되어 왔다. 한국의 정치제도는 민주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실제의 정치 상태는 비민주적인 행태가 반복되어 왔다. 군부의 정치 참여와 물리력에 의한 정치 권력의 출현으로, 절대 왕권국가이던 조선시대의 정치만도 못한 비민주적인 정치가 자행되어 왔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국민의 기대와 여망 속에서 출범한 문민정부도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참다운 민주 정치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 정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을 완전히 무시하고 여당 단독 국회에서 주요한 법률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은, 아직도 한국의 정치가 전근대적인 비민주적 정치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한국이 민주 정치제도를 도입해 온 것이 반세기가 되고 있는 데에도, 아직까지 참다운 민주 정치가 실현되고 있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우리의 역사적 상황과 전통을 경시하고 서구의 정치 사상과 정치 제도만을 신봉하고 있는 것이 주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 고유의 전통적 사상은 서구의 사상보다 인간주의적이고 자연적인 조화를 강조하는 등 보다 합리적이어서 현실 정치에 적용되어야 할 가치를 지녔다고 볼 수 있으며, 가능성도 매우 크다.

특히 한국의 전통 사상인 대순 사상은 민주주의가 실현하고자 하는 이념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살펴 보았다. 대순 사상이 곧 민주주의 이념을 달리 표현한 것이라 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 이념과 대순 사상의 관계는 IV. 민주주의와 천지공사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민주주의 이념은 대순 사상인 해원사상, 상생사상, 보은사상, 인존사상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여기서는 대순 사상 중 천지공사에 관해서만 고찰하였는데, 대순사상은 민주주의와 인간 생활에 있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본다. 이 논문은 대순 사상의 한 부분인 천지공사와 민주주의와의 관계를 서설적(序說的)으로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대순 사상에 관해 보다 심층적인 학계의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1. 저 서

가. 한 국

- 대순진리회 교무부(편), 전경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9)
대순진리회 교무부(편), 대순지침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대순진리회(편), 대순논집 (서울: 대순진리회, 1992)
대순종교사상연구소(편), 천지공사론 (서울:대순진리회 출판부,1989)
대순사상학술원(편), 대순사상논총 : 제1집 (경기 포천: 대진대학교출판부, 1996)

림영창, 飯山神學概論(서울: 증산사상연구회, 1982)

李克燦, 民主主義 (서울: 종로서적, 1983)

이극찬 역/Bertrand Russell, 權力論(서울: 법문사, 1982)

李東熙 역/William Ebenstein & Edwin Fogelman, 現代政治理念(서울: 법문사, 1986)

李相斗 譯/C. B. Macpherson, 자유민주주의에 희망은 있는가(서울: 범우사, 1992)

장병길, 대순종교사상 (서울: 대순종교사상연구소, 1987)

車基璧, 民主主義의 理念과 歷史(서울: 한길사, 1980)

崔 明 역/Arend Lijphart, 民主國家論(서울: 법문사, 1985)

논어

맹자

장자

공자

나. 서 양

Abraham H. Maslow, "The Theory of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July, 1943)

David Held, "Democracy: From City-States to a Cosmopolitan Order ?" ,

- Political Studies, vol. XL. (1992), Special Issue.
- Ernest Barker(ed. and trans.), The Politics of Aristotl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46)
- Francis MacDonald Cornford(trans.), The Republic of Plato(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 George Sabine, “The Two Democratic Traditions”, The Philosophical Review, Vol. LXI(October, 1952)
- Gunzo Kojima(ed),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Democratizations for Democratic Education in Japan(Tokyo: The Institute of Educational Research and Service 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1960)
- George Orwell, Animals Farm
- Jack Walker, “A Critique of the Elitist Theory of Democr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0.(1966, June)
-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 M. J. Crozier, Samuel P. Huntington and J. Watanuki, The Crisis of Democracy(New York:New York University Press, 1975)
- Roy C. Macridis, Contemporary Political Ideologies: Movements and Regimes(Glenview, Illinois Boston London : Scott, Foresman and Company, 1989)

2. 논문

- 고남식, “전경에 나타난 신원의 의미” 대순사상논총: 제1집(경기 포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6)
- 김안제, “인간과 환경,”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편), 「미래지향의 인간교육」(서울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1986)
- 양무목, “대순 사상과 한국 정치,” 대순사상학술원(편), 「대순사상논총: 제1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출판부, 1996)
- 양무목, “한국의 의회정치와 정치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

18집」(서울: 한국정치학회, 1984)

이항녕, “대순사상에 관한 소고,” 대순종교문화연구소(편). 「대순사상의
현대적 이해」(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8)

장근환, “천지공사의 현대적 분석,” 대순진리회(편), 「대순논집」(서울:
대순진리회, 1992)